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③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④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⑤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하였다.

정답: ②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치레걸이 등을 통해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나무로 만든 농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농경은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앙 및 예술도 발달하여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났고,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고, 이 시대의 예술품으로는 주로 흙을 빚어 구운 얼굴 모습이나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가비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치레걸이 등이 있었다.

① 철기 시대가 시작되며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③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연), 반량전(진), 오수전(한)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 준다.

④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⑤ 청동기 시대부터 부족간 전쟁이 잦아지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여 마을 주위에 목책이나 환호를 설치하였다(부여 송국리, 울산 검단리 우적).

2.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고조선은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으로 ㉡여러 사서에 수록되어 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왕 아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진·한 교체기에 중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유이민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다.

- ① ㉠ -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다.
- ② ㉡ -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이 있다.
- ③ ㉢ - 국상, 막리지 등이 있었다.
- ④ ㉣ -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 ⑤ ㉤ - 사유 재산을 중시하는 조항이 있었다.

정답: ③

* 고조선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면서 만주 요령(遼寧)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에는 족장(군장)이 다스리는 많은 부족들이 나타났다. 단군왕검(단군-제사장, 왕검-군장)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BC 2333).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고 있다.

고조선은 청동기문화의 발전에 따라 점차 정치·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그리하여 기원전 4세기경에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잇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진·한 교체기인 기원전 2세기경, 서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시기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주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 한반도 남부 지방에 위치한 진의 여러 나라와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부강해졌다.

고조선이 강성해지면서 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커가자, 한은 대군을 보내어 수도인 왕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막강한 한의 대군을 맞아 1년 동안 버티면서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법률은 8개 조항이 있었는데, 다음의 3개 조항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 법을 보면, 고조선 사회는 사람들의 생명(노동력)과 재산을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② 국상, 막리지는 고구려의 수상에 해당하는 관직명이다.

3. 지도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하였다.
- ② 지증왕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③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강화되었다.
- ④ 장수왕이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 ⑤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정답: ⑤

* 가야 주도 세력의 변화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 거

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①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346~375)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369),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371).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② 신라는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③ 고구려가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이후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하게 되자 신라 눌지왕은 압박을 느끼던 차에, 433년에 백제(비유왕)가 먼저 화친을 요청해 오자 이에 응하여 나제 동맹이 결성되었다. 또한 백제 동성왕은 신라 소지왕과 동맹을 강화하여(493, 결혼 동맹)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④ 고구려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뒤이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475)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4. 백제의 중흥

1) 동진 시기

- 중국 양나라와 교류
- 22 담로에 왕족 파견, 지방 통제 강화

2) 사비 시기

(가)

- ① 동진에서 불교 전래
- ②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
- ③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
- ④ 중앙 관청을 22부로 정비
- ⑤ 미륵사 등 대규모 사찰 건립

정답: ①

* 사비 시기의 백제의 중흥 노력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려 개로왕(455~475) 때에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고(결혼동맹, 493),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22부)과 지방 제도(5부 5방)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551)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553),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무왕(600~641)은 634년 왕흥사를 창건하고(최근에 577년 위덕왕 때로 수정됨), 궁남지를 건설하였으며, 미륵사를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자주 벌이고 신라와의 전쟁이 잦아 국력이 소모되는 등 실정이 잦았다.

① 백제는 침류왕 때에 중국 남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384).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역사 퀴즈: ○○번>

사회자: 다음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접해 있었습니다. 영토는 2천리이며 가호는 8만이었습니다. 나라에 군왕이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의 제가(諸加)가 사출도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_____ (가) _____

- ①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②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③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 ⑤ 도독질한 자에게는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정답: ③

* 초기 국가 부여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등이 유명하였다.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서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에 편입되었다(494).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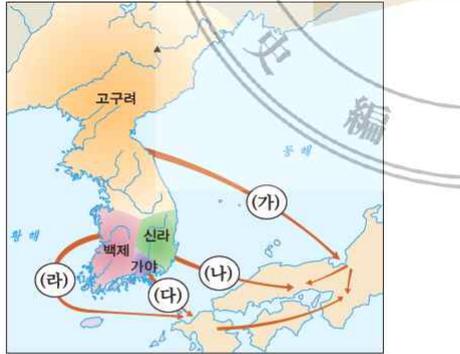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문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조선의 8조의 법과 비슷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⑤ 옥저에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이 민며느리제의 풍습이 있었다.

6. (가)~(라)의 문화 전파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가. (가) - 노리사치계는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나. (나) - 헤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다. (다) - 스에키 토기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라. (라) -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쳤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 삼국과 가야의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까웠던 백제가 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6세기에는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래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호류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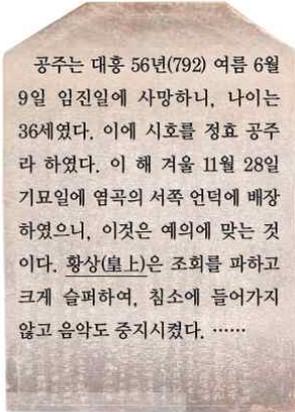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초에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헤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헤관은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벽화 고분과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 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일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에 나라 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가야의 경질토기는 일본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쇼몬, 야요이 토기와는 다른 경질 회색토기인 스에키 토기를 탄생케 하였다.

7. 밑줄 그은 '황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당, 신라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다.
- ②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 ③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 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 ④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 ⑤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④

* 발해 문왕

문왕(737년~793년): 무왕의 아들로써 발해 제 3대 왕. 연호는 대흥(정효공주묘비), 보력(정혜공주묘비)을 썼다. 후원 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북으로는 불열말갈과 철리말갈을 포섭하였고, 또한 남쪽으로 용흥강 주변까지 발해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정했다가 다시 동경 용원부로 옮겼다. 문왕은 관직제도를 제정, 사적(史籍) 수입, 주자감(胄子監) 설립 등 정치·문화발전에 힘을 기울였

다. 또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신라도)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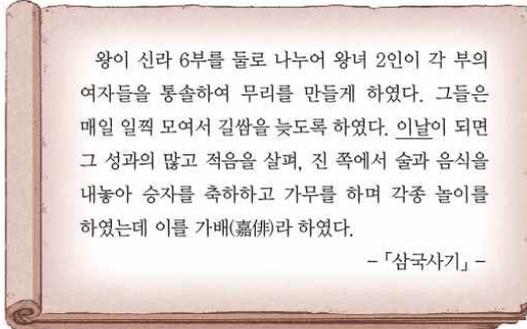
그의 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문왕을 가리켜 황상(皇上)이라 칭하고 있어 발해가 그의 대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①, ③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발해의 남부 경계를 공격하였으나 악천후로 실패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②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둔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9. 밑줄 그은 '이날'과 관련된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
- ②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
- ③ 단오물은 정승하기보다 더 어렵다.
- ④ 청명에는 부지깥이를 거꾸로 꽂아 놓아도 산다.
- ⑤ 가을 맞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맞은 술내에서 온다.

정답: ⑤

* 추석(한가위)의 세시풍속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中秋節), 가배(嘉俳), 한가위라고도 한다.

역사적 유래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6부의 여자들을 둘로 편을 나누어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기망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베를 짜게 했다. 8월 보름이 되면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다. 이때 회소(會蘇)라는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는데 이를 '가배(嘉俳)'라고 불렀다.

8월은 한해 농사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풍성한 시기로 명절 중 으뜸이다.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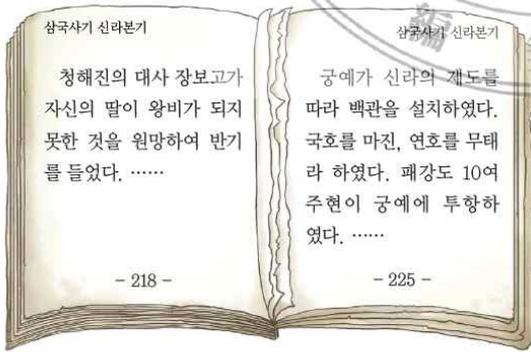
① 날씨가 아직 쌀쌀한 음력 2월에 있는 춘분(春分: 양력 3월 21.22일)과 관련이 있는 속담

② 동면하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양력 3월 5.6일)과 관련이 있는 속담

③ 모내기과 관련이 있는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에 관련된 속담으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단오물(단오비)를 염원하는 속담이다.

④ 청명(淸明: 양력 4월 5.6일)은 한식(寒食) 하루 전 또는 당일로서, 농경 사회에서는 이날을 기다려 농사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을 즈음하여 비가 서너 차례 땅을 적시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명은 생명력이 왕성한 절기인데 이 속담이 말해주고 있다.

10. 다음 책의 훼손된 부분에 들어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학이 설립되었다.
- ② 김현창의 난이 일어났다.
- ③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 ④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 ⑤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정답: ⑤

* 신라 하대의 연대기(846~904)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왕위 쟁탈전에서 탈락한 낙향 진골 귀족의 반란(예: 822년 웅주 도독 김현창의 난)과 지방 세력들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예: 846년 장보고의 난)은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전개

되었다.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후백제는 차령 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견훤은 신라에 적대적이었고, 농민에게 지나치게 조세를 수취하였으며, 호족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궁예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북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904)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911),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고 왕건이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하였다(918).

①, ③ 통일 직후의 대표적 전제군주인 신문왕(681~692)은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다(689). 나아가, 유교 정치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11.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대몽 항쟁 유적지를 찾아서

1. 진도의 용장산성



용장산성의 궁궐터

몽골군에 항복한 고려 왕실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가)은/는 해산 명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진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배중손의 지도하에 궁궐과 성곽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 ① 국경 지대인 양계에 처음 설치되었다.
- ② 유사시에 항도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 ③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④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 ⑤ 병농일치의 부대로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답: ④

* 삼별초

삼별초는 1219년(고종 6) 최충현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경찰 및 국왕 시위를 하는 공적인 준군사집단이며 동시에 최씨 무신정권의 전

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항쟁하였으나 김방경,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다.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①, ②, ⑤ 고려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부대는 중앙군인 2군 6위의 군인들과는 달리 군인전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주현군은 보승·정용·일품군으로 구성된 주로 번상병 또는 병농일치적(민전 경작 농민) 예비군이고, 주진군은 초·좌·우군의 정규군으로 구성된 주로 현지의 상비군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임진왜란 때에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4). 훈련도감의 군병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고, 조선 후기의 지방군 체제인 속오군은 위로는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12.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승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의붓아버지가 집이 가난하다며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면서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행히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니, 아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공을 솔성재에 입학시켰다. …… 봄에 과거에 응시하여 김돈중의 문생으로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 이승장 묘지명 -

- ①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받았다.
- ②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가 세워졌다.
- ③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 ④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 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정답: ③

*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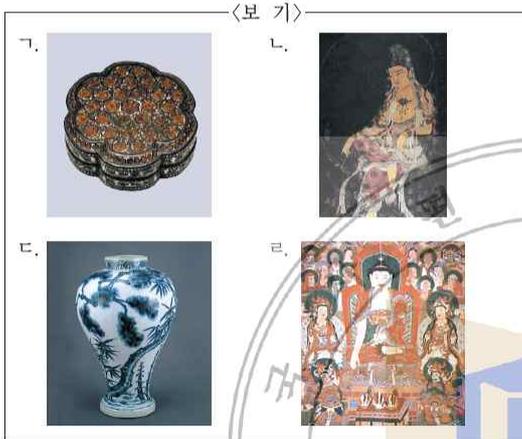
재가녀의 자식으로 과거(문과)를 치를 수 있는 것과, 최충의 9재 학당 중 하나인 솔성재 출신, 김돈중(김부식의 아들)의 문생임을 통해 고려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①, ④, 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 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또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 내부에서 양반이 지녔던 권위도 점차 약해지며 균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양반들은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13.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①

* 고려의 문화 유산

고려 시대에는 옷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나전 칠기 공예가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불경을 넣는 경함, 화장품 갑, 문방구 등이 남아 있다. 나전 칠기 공예는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고려 후기에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양류 관음도와 여러 종류의 수월 관음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 고려 나전칠기 염주함 (보스턴 미술관 소장)

㉡ 수월 관음도 (국보 1286호) : 고려 시대

㉢ 청화 백자 '흥치 2년 명' 송죽문호 (국보 176호) : 조선 초기 (1489년)

㉣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 (17세기): 조선 후기작. 고려 불화의 경우에는 여러 존상을 같이 배열할 경우 주존(主尊)을 돋보이게 상방(上方)으로 우뚝 솟게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불화에서는 보살상이나 불제자상이 주존을 둘러싸게 배열하고 있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 시대 불교가 여러 보살 신앙을 발전, 전개시킨 데에서 연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 불교에서 대중 불교로 전개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4.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기철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당들은 모두 도망쳤다. 궁성은 엄중한 경계 중에 있었으므로 정치상을 석방하여 순군제공으로 삼아 왕을 호위케 하였다. …… 얼마 안 되어 고의로 기철의 무리를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원호 등을 옥에 가두었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였다. 정동행중서성이문소를 철폐하였다.
- 「고려사」 -

- ①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 ②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 ③ 정계와 계백묘서를 지었다.
- ④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④

* 공민왕의 업적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을 처단하고, 원의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한 것을 통해 공민왕의 업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민왕(1351~1374)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1356),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이성계와 지용수를 시키어 요동 지역을 공략하였다(1369~1370).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면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특히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여(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 과거제도를 정비하여 신진사대부들을 중용하였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① 위화도 회군에 성공하여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②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③ 태조 왕건은 정계와 계백묘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936).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⑤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983)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15.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간관이 상소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까닭은 첫째, 어진 사대부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 그 덕성을 배우려는 것이고, 둘째, 환관 및 궁첩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줄여 게으름에서 떨쳐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가)을/를 여시어 「대학」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 「태조실록」 -

- ① 고려 때 처음 시행되었다.
- ② 승정원의 주관으로 운영되었다.
- ③ 연산군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 ④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가 교재로 사용되었다.
- ⑤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과 정책을 토론했었다.

정답: ②

* 경연 제도

조선의 국왕은 하루 세차례의 강의 일정이 있는데, 이를 경연(왕과 신하들간의 토론)이라 하며 일정은 매일 아침에 조강(朝講)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포함하여, 세 번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재는 4서 5경과 역사 및 성리학 서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강의하였다. 4서 5경의 경우에는 주석집(註釋集)을 정독하였고, 역사서는 통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연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에서 주관하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경연이 단순한 왕의 학문 연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경연을 일시적으로 폐지한 연산군이나 태종, 세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실행한 군주들은 경연을 꺼리는 반면, 세종, 성종, 정조와 같은 호학(好學) 군주들은 경연에 매우 열심이었다.

① 고려 예종 대에 관학 진흥을 위하여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하고 당시 문명(文名)이 뛰어난 자들을 소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경연 활동에 참가케 하였다는 것을 통해 경연은 고려 시대부터 이미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밑줄 그은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에 대장을 만들어 호조, 해당 도, 해당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는 주척 4자 7치 7푼 5리에 해당하고, 6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는 주척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 「경국대전」 -

<보 기>

ㄱ.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ㄴ. 가족 및 유실수의 현황도 기재하였다.
 ㄷ. 조선 후기 대동세 징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ㄹ.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재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토지 대장 양안(量案)

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민정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으며,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민정문서에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즉 호구와 토지를 한 문서에 기입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접어들어 호적과 양안이 분리되었고, 연령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절대면적 단위인 결부법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품전(田品: 토지 등급)이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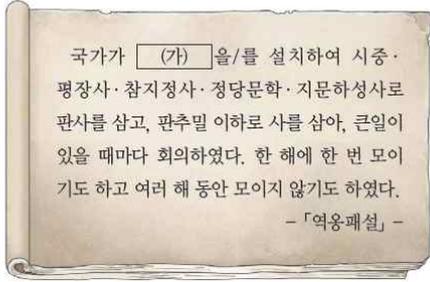
조선 시대의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의 세금 부과 자료일 뿐 아니라 개인의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작성한다.

㉠ 조선 후기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양안은 징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 임진왜란 이후 양안이 대부분 소실되어. 임진왜란 직전 전국의 토지 결수는 150만 결이었는데, 직후에는 30여만 결로 크게 줄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6부를 통해 행정 실무를 맡아보았다.
- ②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 ③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전담하였다.
- ④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⑤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하여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 ②

* 도병마사(都兵馬使)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문종 때에 완성: 1076).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최고 정무기관으로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고 국정을 심의·결정)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중1품)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장관인 상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정2품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 또는 한직으로 많이 이용되어 상서성이 중서문하성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법제·격식을 다루는 임시 회의 기관)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도병마사는 국방·군사 등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재신-문하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 추밀-판사·지원사·동지원사·부사·첨서원사·직학사).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한편, 재신과 추밀은 6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8. 밑줄 그은 ㉠의 근거를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영은문과 모화관의 설립 목적을 알아보기
- ㄴ. 제주도에 설치된 탐라총관부의 기능을 조사하기
- ㄷ.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을 조사하기
- ㄹ. 발해가 인안, 건흥 등의 연호를 사용한 의미를 파악하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역대 자주적 국가관의 모습

우리나라가 중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로 칭제건원을 든다. 즉 왕이 아닌 (황)제로 칭하고 중국이 아닌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보면 '천제(天帝)의 후손이 지배하며 항상 하늘님의 후원을 받으며 왕이 죽은 후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은택이 사해에 퍼지고 구이(九夷)를 제압하였다'는 표현에서 고구려 중심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부여 등의 조공을 받는 중화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영락)를 세웠고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졌다. 태왕(太王) 또는 대왕(大王)이라 함은 '왕중왕'이라는 뜻으로 비록 황제

라는 용어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대왕이라는 칭호는 황제라는 칭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발해 정치의 자주성은 이처럼 중국측에서도 '사사로이' 결정하였다고 하는 연호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해는 고왕 대조영이 '천통(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이래, 대체로 모든 왕들이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원칙이 지켜졌다. 즉 전하는 연호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무왕대의 '인안(仁安)', 문왕대의 대흥(大興) 선왕대의 '건흥(建興)' 등과 같이 역대의 국왕들이 모두 연호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 모화관(慕華館)은 '중화(中華)를 숭상'하기 위한 건물로서, 명·청 대에 중국 사신들에 대한 환영연과 송별연을 극진히 베풀어주던 영빈관으로 사용하여 오던 사대의 상징적 건물이고, 이들 사신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영은문(迎恩門)은 모화관 앞의 일각문(一脚門)으로 역시 사대의 상징적 건물이다. 2차 갑오개혁 때(1895.2)에 영은문을 철거하고 독립협회는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고 영은문 대신에 독립문(1897.11 완공)을 건설하고, 그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조성하였다.

㉡ 탐라총관부는 고려 후기 원의 간섭기 때인 1273~1275년 사이 시기에 원나라가 탐라(耽羅 : 지금의 제주도)에 설치한 총관부(직할령). 일본과 송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과 목마(牧馬)의 용도였으나 1294년 고려의 간청에 따라 반환되었다.

19.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감사가 빗물의 양을 보고하는 법은 이미 있으나 토질의 습도가 같지 않고 흙 속으로 스며 든 깊이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읍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짓고 쇠를 부어 그릇을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본관 관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재어 보고하게 하고, …… 또 외방 각 고을에도 자기나 와기를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어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빗물의 수량을 재어서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하여 알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 < 보 기 >
- | | |
|-------------|---------------|
| 가. 시병 철폐 | 나. 주자소 설치 |
| 다. 향약집성방 편찬 | 르. 의정부 서사제 실시 |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정답: ⑤

* 세종의 업적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측우기)를 통해 세종(1418~1450)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치: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먼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 이어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다.

경제: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고(1444)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문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많이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 자신이 사병을 통해 정권을 잡았기에 그 위험성을 알고, 사병을 없애(1400)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1403). 이어서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1434),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20.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은/는 본래 고려의 용만현인데, 화의라고도 불렸다. 처음에는 거란이 압록강 동쪽 기슭에 성을 두고 보주라고 일컬었고, 문종 때에 거란이 또 궁구문을 설치하고 포주, 일명 파주라고 일컬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 ① 서희의 활약으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 ② 고려 말 이성계가 명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다.
- ③ 세종 때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피해 선조가 피난한 곳이다.
- ⑤ 조선 후기에 만상이 청과의 무역을 활발히 펼쳤다.

정답: ③

* 의주(義州)의 역사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의주는 중국으로 가는 국경 관문으로, 거란의 1차 침입(993) 당시 서희의 외교적 노력으로 획득한 압록강~청천강 하류 지역에 설치한 흥화(의주)·용주(용천)·통주(선천)·철주(철산)·귀주(구성)·곽주(곽산)의 강동 6주 중 하나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 말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을 때 이성계는 위화도(의주 소속)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선조는 국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피난지 평양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함께 의주로 피난을 갔다(의주 파천).

조선 후기에는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 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의주의 만상(灣商)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③ 세종 때에 여진족이 살던 북방 지역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여연·자성·무창·우예)을 설치하고(143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종성·온성·경원·경흥·회령·부령)을 설치하였다(1449).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 ②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 ③ 빈민 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 ④ 호장, 부호장 등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 ⑤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답: ①

* 유향소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士族)이었다.

이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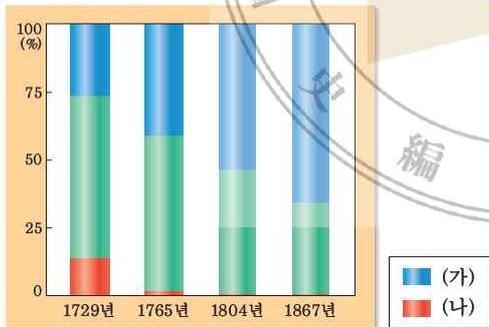
② 고려 태조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 사심관 제도는 중앙의 경재소와 지방의 유향소로 분화되었고 유향소(留鄕所)는 말 그대로 유향품관(留鄕品官) 또는 재지사족이 주도하게 되었다.

③ 조선 시대에 빈민구제를 위하여 국가에서 의창, 상평창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된 사창(社倉)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 고려 시대에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호장, 부호장 등의 향리가 담당하였다.

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22. 다음 시기 (가), (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울산 지역 신분별 인구 변동>

정석중,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연구』, 1983

<보 기>

- ㄱ. (가) - 수군, 조례 등 천역에 종사하였다.
- ㄴ. (가) - 공명첩, 족보 위조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 ㄷ. (나) -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 ㄹ. (나) -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의 양반과 노비 신분

향촌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신분 변동이 활발했다.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19세기 후반에는 전체 인구의 2/3),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1801년 공노비 해방).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이 지위를 높이거나 역의 부담을 모면하려고 납속책과 공명첩으로 합법적으로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 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시켰다. 또한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노비종모법, 1731)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 고려.조선 시대에는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에서는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한 일꾼 가지 부류가 있었다(칠반천역).

㉡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 노비와 신량역천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23. 지도의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알아본다.
- ② 개경의 나성 축조 과정을 조사한다.
- ③ 요동 정벌의 추진 배경을 파악한다.
- ④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목적을 찾아본다.
- ⑤ 경복궁의 소실과 중건 과정을 살펴본다.

정답: ①

* 병자호란(1636)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정권은 명·청 교체기의 상황 속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던 광해군 때와는 달리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친명배금)을 펴서 후금의 경계심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해지자, 후금의 군대가 이를 틈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그러나 당시에는 후금의 군사력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화의를 맺고 되돌아갔다.

그 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536.12).

청군은 의주 부윤 임경업이 굳건히 지키는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10여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다.

서울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는 본래

강화도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다. 주화파(최명길)와 주전파(김상헌) 간의 농성 끝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三顧九饋: 세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조아리는 절).

두 차례의 호란은 왜란에 비하여 전쟁 기간은 짧았지만, 서북 지방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① 삼전도비는 '대청황제공덕비'라는 제목으로 만주어, 몽골어, 한자로 씌여져 있다.

② 거란의 3차례에 걸친 침입을 막아낸 고려는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 강화에 힘썼다. 현종 때에는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았고, 그 후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③ 원을 막북으로 축출한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⑤ 흥선 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1865~1872). 이는 광화문 앞의 6조 거리를 포함하여 한양의 도시 구조를 되살리고, 왕실의 권위를 되살린다는 의미가 있었다.

24.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평민층의 자제도 입학할 수 있었다.
- ②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 ③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 ④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 ⑤ 고을의 크기에 따라 학생 정원의 차이가 있었다.

정답: ②

* 조선의 향교

향교는 고려·조선의 지방의 중등 교육 기관이다. 사농일치(士農一致)를 표방한 조선에서는 양반 및 양인이 입학할 수 있었다.

조선의 향교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또한 '흥학교(興學校)'를 수령 7사의 하나로 넣어 향교의 건립과 향교 교육을 장려하였다.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의 하급 관학으로서 문묘(공자를 모시는 곳)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소재한 대성전 영역과 명륜당(강당) 및 학생들이 기숙하는 동재(東齋: 양반)·서재(西齋: 평민)가 있는 명륜당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 하에 두어 부·대·도호부·목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 6품의 교수와 정 9품의 훈도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 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②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 정리를 단행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2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여기는 정여립이 죽은 진안의 죽도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서인에 의해 옥사가 일어나 동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후 동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가)와/과 온건파인 (나)으로 분열되었습니다.



- ① (가) - 경종의 즉위를 적극 후원하였다.
- ② (가) -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였다.
- ③ (나) - 이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 ④ (나) - 경신환국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 ⑤ (가), (나) - 2차에 걸쳐 예송 논쟁을 벌였다.

정답: ②

* 복인과 남인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1575),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1589)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복인으로 나뉘었다(1591).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복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복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1659-기해예송, 1674-갑인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1680-경신환국:서인집권, 1689-기사환국:남인집권, 1694-갑술환국:서인집권), 나중에는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강경론)과 소론(온건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①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남인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지만 남인 잔여 세력에 대해 보합조제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소론은 남인 계열 장희빈 소생의 경종의 즉위를 후원하였다.

③ 서경덕 학파(복인)와 이항 학파(후일 남인), 조식 학파(복인)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노론)와 성혼 학파(소론)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26. 다음과 같은 규약을 가진 향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동네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각자 쌀 1되, 빈 가마니 1장씩을 낸다.
- 30세 이하의 문반도 무반도 아닌 자들은 소학, 효경, 동자습 등의 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소송이 있을 때는 계장, 유사가 잘잘못을 가리되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하면 사족들이 회의하여 결정한다.
-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연명으로 관청에 보고하여 억울한 죄명을 벗도록 노력한다.

- 「율곡전서」 -

- ① 이황 등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 ② 매향을 통해 평안을 기원하였다.
- ③ 사림의 농민 지배를 강화시켰다.
- ④ 상호 부조와 유교 윤리를 실천하였다.
- ⑤ 조광조가 널리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답: ②

* 향약(鄉約)

상부상조의 윤리와 유학 보급의 확대, 사족 중심의 운영, 계장(契長) 約은 같은 뜻).유사(향임직) 등의 직책을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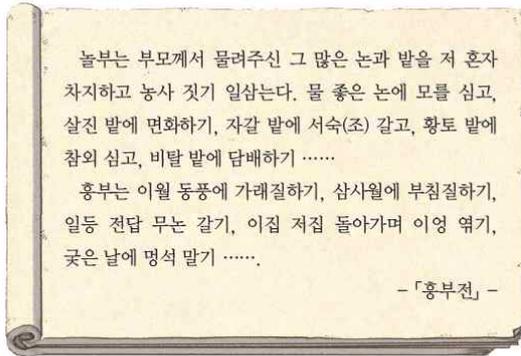
조선 시대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이황(예안향약)과 이이(서원향약, 해주향약)가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상부상조)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② 고려.조선의 농민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 인 것이 향도였다. 향도는 매향(埋香) 활동을 통해 평안을 기원하는 신앙적 기반과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었다. 즉 주로 상(喪)을 당하였을 때에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상여를 메는 사람인 상두꾼도 향도에서 유래하였다..

27.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국적으로 장시가 널리 확산되었다.
- ② 광작과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 ③ 상업 장리를 위해 관영 상점이 개설되었다.
- ④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출현하였다.
- ⑤ 정릉 지대에서 정액 지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경제상

모내기, 담배 등을 통해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지방의 정기시장인 장시는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을 확대되어 농민들의 농업경영 방식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광작).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상품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조선 후기에 소작 농민은 좀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수확량의 반을 내던(정률제, 타조법)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정액제, 도조법)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③ 조선 초기에는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28.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이 도야(陶冶)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농사가 황폐해지고 상업이 척박하여 각각 그 업을 잃게 되면,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 ① 100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 ②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 ③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 ⑤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는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정답: ⑤

*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의 실학 사상은 18세기 전반의 유수원에 의해 제기되어, 18세기 후반에 북학파라는 이름으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북학파 실학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다.

① 18세기 정삼기(1678~1752)의 동국지도(1740)는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② 광해군 때 이수광은 <지봉유설(1614)>에서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 불교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③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④ 18세기 후반 영조 때에 국가적 사업으로 흥봉한 주판 하에 동국문헌비고(1770)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상고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29. 밑줄 그은 '요즘'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
- ②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인
- ③ 법주사 팔상전 앞을 거닐고 있는 승려
- ④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전조를 바치는 농민
- ⑤ 호랑이를 소재로 하여 민화를 그리는 화가

정답: ④

* 조선 후기 사회상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면에서 새 기운이 나타났다. 서당 교육 보급이 확산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양반을 중심으로 유교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던 문예 활동에 중인층과 서민층이 참여하여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역관이나 서리 등의 중인층 및 상공업 계층과 부농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민이나 광대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교양이나 심성 수련이 목표였던 조선 전기의 문예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경향은 자연히 양반의 위

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특히,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는 해, 달, 나무, 꽃, 동물(까치, 호랑이 등),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①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었다.

③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1635), 화엄사 각황전(1702), 법주사 팔상전(1605)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⑤ 조선 전기 과전법~직전법(1391~1556) 체제하에서는 전객(佃客)인 경작 농민들은 수조권자인 전주(田主) 관료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전조(田租)로 바쳤다.

30.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가) -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 국가이다.
- ㄴ. (가) - 조선에서 주로 곡물, 금, 쇠가죽 등을 수입하였다.
- ㄷ. (나) - 청·일 전쟁 이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 ㄹ. (나) - 양화진에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개항기의 청·일

개항 초기(1776~1882) 조선의 무역은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통상 규칙을 이용하여 일본 상인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고 쌀, 콩, 금, 쇠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임오군란(1882) 이후 청 상인의 활발한 진출로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청·일 전쟁(1894) 직전에는 조선에 대한 양국의 수출 무역 규모가 거의 비슷해지고 조선의 무역수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1882.9)으로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이 허용되었다.

㉠ 1882년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서양 열강 가운데 처음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관세 부과 조항과 양국의 우호 협력을 강조한 규정(거중조정)도 있었지만, 영사 재판권과 최초로 최혜국 대우(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자동 부여) 조항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31. 자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구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구 백동화는 지난 율희 2년 11월 말로써 일반 통용을 금지하고 다만 공납에 한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함을 허용하였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코 통용함을 금지할 터이니, 인민들은 그 가진 구 백동화를 올해 안으로 공납에만 사용하되 오히려 남은 것이 있거든 역시 본 기한내로 매수함을 청구하여 의외의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함이 가함.

율희 3년 11월 1일

- ① 전환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 ② 탁지부에서 정책을 집행하였다.
- ③ 시행 직후 통화량이 급감하였다.
- ④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⑤ 한국인 상인과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정답: ①

* 화폐정리사업(1905~1909)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은화·적동화·백동화·엽전 등 모든 화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시 중점이 두어졌던 것은 백동화였다. 백동화는 주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동화의 교환은 제일은행에서 담당하고 백동화를 갑·을·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법정 교환율인 2전 5리로 교환해 주며, 을종은 1전으로 교환해 주거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돌려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① 1883년 동도 개화 정권은 통화정책의 보다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초의 상설 조폐기관인 전화국을 설치하여 신식 화폐를 발행케 하였다. 그러나 당오전, 은화, 백동화(1892)를 비롯한 무려 15종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여 후일 화폐정리사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② 탁지부는 2차 갑오개혁 때의 내각 개혁(1895.4)에 기존의 재정일원화 기관인 탁지아문을 계승하여 전국의 예산·결산·조세출납·국채·화폐 등의 업무와 각 지방의 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화폐정리사업을 집행하였다.

32. 자료는 어느 신문의 창간사이다.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과목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 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 우리가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오,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 한다.

- ① 천도교에서 발행하였다.
- ②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었다.
- ③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 ⑤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정답: ④

* 독립신문(1896~1899)

아관 파천 후 서재필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1896.4).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독립 협회가 설립되자 이 신

문은 협회 기관지의 성격을 띠면서 자주 독립 정신과 근대적 민권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서재필이 신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독립신문”은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1899.12).

①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민중을 계몽했고, 일진회 등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천도교계에서는 만세보(1906~1907)를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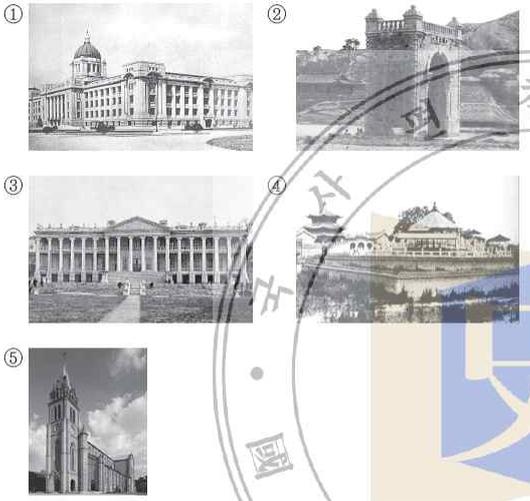
② 개화파는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었지만,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③ 일제에 의해 제정된 신문지법(1907)에 의하여,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황성신문>·<제국신문>이 보증금 문제로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친일기관지로 전락하였다(1910).

⑤ 황성신문(1898~1910):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 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에 반대한 보안회를 지원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 분노를 토하였던 장지연의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다.

33. 다음은 어느 외국인의 가상 회고록이다. 밑줄 그은 '건축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내가 만국 평화 회의를 취재하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다가 대한 제국 특사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은 충격이었다. 그해 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신문에 한국으로 보내주길 요청했고, 겨울이 시작 될 무렵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해가 가기 전 일행과 함께 전차를 타고 눈 덮인 황후의 무덤을 다녀오면서 죽은 황후를 향한 한국 황제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 …… 4년 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며 여러 건축물을 볼 수 있었다.



정답: ①

* 1907~1911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근대 건축물

헤이그특사 사건(1907)이 일어나던 해가 힛트가 된다.

①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26년 경복궁의 일부를 헐어내고 지어진 것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의 청사(중앙청)로 사용되어 오다가 나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도 사용되었다. 이후 청사 철거와 보존을 놓고 각계가 대립하였으나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 철거되었고 청사 윗부분 돔만이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② **독립문**: 2차 갑오개혁 때(1895.2)에 영은문을 철거하고 독립협회는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고 영은문 대신에 독립문(1897.11 완공)을 건설하고, 그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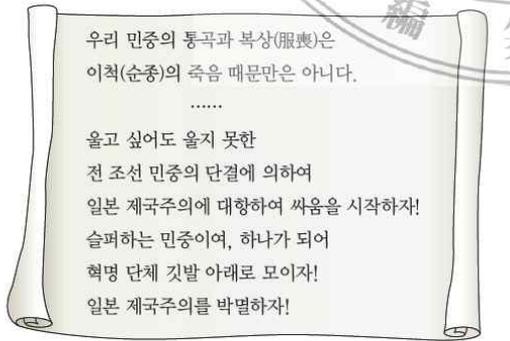
③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의 정국인 경운궁(현 덕수궁)의 석조전은, 조선의 궁궐이 침전(왕의 침소)과 정전(업무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과 달리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통합된 건물이었다. 기본 설계는 영국인 하딩이, 내부 설계는 영국인 로벨이 하여 지어진(1900~1910) 근대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건물로서, 기둥 윗부분은 이오니아식,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한 서양식 건축기법이 특이하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유럽 궁전건축 양식을 따른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이곳에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6.25 전쟁 이후인 1954~1973년엔 국립(중앙)박물관, 1973~1986년엔 국립현대미술관, 1992~2004년에는 궁중유물전시관, 2005년 이후에는 국립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원구단과 황궁우**: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터에 단을 만들어 조성한 단지이다. 그뒤 단지 내에는 화강암으로 된 기단 위에 3층 8각 지붕의 황궁우(皇穹宇)를 1899년에 축조하고 신위판을 봉안하였으며,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단을 황궁우 옆에 세웠다. 석고(石鼓)의 몸체에 부각된 용무늬는 조선 말기 조각의 걸작으로 꼽힌다.

⑤ **명동성당**: 프랑스 신부 고스트가 설계하여 1892년에 시작되어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 고딕 양식(첨탑+스테인드글라스)이다. 원래 이름은 종현성당이었으나 1945년에 명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34.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③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 ④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 후원하였다.
- 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③

* 6.10 만세운동(1926)

사회주의자(조선 공산당), 천도교,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으나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천황 통치 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을 통해 이 운동을 탄압하였다. 특히, 6·10 만세투쟁으로 인한 화요파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2차 조선공산당사건)는 화요파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족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3·1 운동(1919)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1907년에는 국민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자립과 국권수호를 이룩하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기관이 적극적인 후원 속에 전 국민으로 확산 되었다.

⑤ 1929년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5. (가)를 처음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제도였다.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본래의 직무를 면제하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졸업하면 익힌 바를 국정에 적용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①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였다.
- ② 속대전을 편찬하고 서원을 정리하였다.
- ③ 어영청을 설치하여 군비를 강화하였다.
- ④ 통공 정책으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 ⑤ 대동법 시행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정답: ④

* 초계문신제를 실시한 정조의 업적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도와 화성 행차를 통해 정조임(1776~1800)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붕당·척신정치로 희생당함을 몸소 목격한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준론 창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법전으로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인(私商人)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을 반포하였다(1791, 신해통공).

①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 내·외편(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② 영조는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고, 속대전(1746)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다.

③ 인조 때에는 반정공신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문제와 맞물려 후금과의 대결 국면에서 도성 방어를 위한 어영청이(1624), 같은 해 이괄의 난 이후 경기 북부 방비를 위해 총융청이, 정묘호란 이후에는 남한산성 수비를 담당할 수어청(기록상은 1626년)이 설치되었다.

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광해군 때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1608).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숙종 때에 함경, 평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었다(1708).

36.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요동 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여 요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나)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군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으로 출동하자, 고종은 이를 틈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보기>

ㄱ.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ㄷ.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되었다.
 ㄹ. 고종이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3국 간섭과 아관파천 사이의 역사적 사실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파병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7). 김홍집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1차 갑오개혁, 1894.7~1894.12).

1차 갑오개혁에서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을 제한하였으며, 신분제를 철폐하고, 각종 폐습을 타파하였다. 또, 은분위 화폐제도와 조세 금납화를 실시하고, 탁지아문이 국가 재정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일본은 흥선 대원군을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2차 갑오개혁(1894.12~1895.7)이 추진되었다. 이 때 고종은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

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 제도 개편(8도-> 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명성 황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명성 황후 시해 사건, 1895.10).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혁, 1895.7~1896.2).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 '건양' 연호 사용,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와 우편 사무 시작,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 군제 개편(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일본의 침략과 급진적인 갑오·을미개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반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2),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㊸ 러·일 전쟁 전쟁 발발(1904.2) 직전 고종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37.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935년 난징에서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민족 혁명당은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듬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부대를 조직하였다.

- ①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③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④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의용대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조선 의용대는 의열단 출신의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1942).

한편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전을 개시하자 조선 의용군은 만주로 진격하여 세력 확대를 꾀하였고, 국공내전(1946~1949)에서 중국 공산군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후 북한으

로 입북하여 6.25 전쟁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북한군 전력의 55% 담당)

①, ②, ⑤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에서는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③ 일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10월부터 3개월간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간도 지역의 수많은 한국인을 학살하고 민가와 학교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간도 참변). 이에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21년 4월 서일을 총재로 하고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한 후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이르쿠츠크파(가해자)와 상해파의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6).

38. 다음 시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빌려 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이 오네.
은 땅을 통틀어도 고개만 저을 뿐
빌리겠단 사람은 하나도 없네.
봄철에 벌레 먹은 쌀 한 말 받고서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말 바치고,
게다가 벌레 먹은 쌀값 돈으로 내려하니
온전한 쌀을 팔아 바칠 수밖에.
남는 이윤은 교활한 관리들만 살찌워
한갓 내시조차 밭이 천 두락이라.

- ①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 ②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 ③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 ④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 ⑤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 사창(社倉)제 실시

봄에 곡식을 관에서 꺾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환곡제도의 문제이다.

흥선 대원군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 회복하였으며 대전회통의 편찬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였다. 이는 광화문 앞의 6조 거리를 포함하여 한양의 도시 구조를 되살리고, 왕실의 권위를 되살린다는 의미가 있었다.

경복궁 중건과 계속되는 군비 확장을 위해 원납전이란 이름으로 기부금을 받아내고, 당백전을 발행하였다(명목가치가 100여배). 그리고 토지 1결당 쌀 1두에 해당하는 화폐를 거두고, 통행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였고, 토목 공사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양반들의 묘지림을 베어 경복궁의 목재로 사용하면 양반들도 반발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하는 호포제(동포제)로 개혁하고, 환곡제를 사창제(면민의 공동출자 운영)로 개혁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 정리를 단행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북별론자인 송시열과 관련이 있는 괴산 화양동 서원 옆에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39. (가)~(다)의 주장들을 계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개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나) 양이의 화가 오늘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邪學)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다)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④

* 위정척사운동의 시기별 전개과정

제시 자료:

- (가) 영남 만인소(1881),
- (나) 이항로의 척화주전 상소(1866),
- (다) 최익현의 개항 반대 상소(1876)

1860년대: 천주교가 유포되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어지자 유생들은 외국과의 교역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 천주교의 확산에 따른 미풍양속의 파괴 등을 들며 통상 반대론을 내세웠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기정진, 이항로 등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 주전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유생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으며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1870년대: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개항 반대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이 서양에게 이미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서양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1880년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을 유포하고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려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1890년대 이후: 1890년대 이후에는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의병(을미의병, 1895~1896)을 일으키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40. 다음과 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조선 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일의 원인이요, ……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① 신간회를 해소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 ②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④ 자치론이 확산되어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되었다.
- ⑤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성되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다.

정답: ④

* 자치론의 확산과 민족주의 계열의 분화

‘先실력양성 後독립’의 민족개조론(1922)을 주장하던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1923) 발표하자 이후 자치론(타협적 민족주의)이 확산되었다. 1924년 초의 자치론은 동아일보의 송진우 등과 천도교의 최린이 중심이 되어 여론을 떠보고, 연정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려 하다가 강한 반발여론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

1926년 후반,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를 조직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던 천도교 신파의 최린과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송진우 등은 다시 비밀리에 자치운동단체를 조직하려 하였다. 물론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들의 자치운동단체 재결성 움직임은 신간회를 발기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조선물산장려회계)들은 사회주의자(서울청년회)와 연합하여 조선민흥회를 만들었다(1926.7).

한편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의 단체 중 하나인 정우회는 1926년

11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정우회 선언). 이 제안이 조선민흥회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 좌우합작의 합법적 단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1927.2).

① 1929년 말 민중대회 사건으로 신간회의 중앙 지도부가 다수 검거되자, 신간회의 지도노선은 합법화·온건화로 기울었다. 합법운동으로 전환하려는 신간회 지도부의 움직임은 자치운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 합법운동 세력은 신간회를 통해 민족주의 우파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신간회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하였던 공산주의 세력은 신간회의 해소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②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는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이 목전에 있다고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민회의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상해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⑤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며 전국적 규모의 노동·농민운동이 전개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1927년 다시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조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파업투쟁은 더욱 확대되며 활성화되었다.

41.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문화계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던 이 시기에는 다양한 문예 사조가 등장하여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저항적인 작품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시로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있다.

- ① 운동주의 서시가 발표되었다.
- ②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 ③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하였다.
- ④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다.
- ⑤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KAPF)를 결성하였다.

정답: ⑤

* 1920년대의 문화 동향

3·1 운동 이후인 1920년대에는 서양 문예 사조의 영향을 받아 창조(1919), 폐허(1920), 백조(1920) 등의 동인지와 여러 잡지가 간행되며 다양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염상섭의 '만세전', 현진건의 '빈처'에서와 같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고단한 삶을 다룬 사실주의적 경향이나, 3·1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과 허무감에 빠져 퇴폐적 낭만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났다.

192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카프(KAPE)를 결성하였다(1925).

① **운동주(1917~1945)**: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기독교적인 자아성찰과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그의 작품으로 '서시(序詩)'(1941.11)가 유명하다.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28살 꽃다운 나이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② 1908년 극장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③ 1908년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발표하여 근대시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였다.

④ 1917년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최초의 근대 소설 '무정'을 발표하였다.

42. 밑줄 그은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의 국제 정세 속에서 1971년에 대한 적십자사가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하여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72년 7월에는 남북한 정부 당국이 비밀 접촉을 거쳐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협의하였다.
- ④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마련하였다.

정답: ⑤

* 7.4 남북 공동성명(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닉슨 독트린(1969) 발표에 따른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

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1991.12).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1998), 2000년에는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 후속조치로 개성공단 건설(2004), 경의선 연결(2000~2002), 남북이산 가족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4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한국 국민당을 조직하여 임시 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조소앙, 지청천 등과 함께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이들은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을 각각 해산하고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후

(가)

< 보 기 >

- ㄱ.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하였다.
- ㄴ. 의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ㄷ.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을 반포하였다.
- ㄹ.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⑤

* 충칭 정착(1940.9) 이후의 임시정부 활동

상해 통합 임시정부(1919.9)는 대통령 중심제로 출발하였으나, 얼마 못가 주 노선인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또한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국민대표 회의(1923)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며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에 빠졌다. 이에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곧 헌법을 고쳐 국무령제(1925.3)로 바꾸었다.

그러나 위상이 약해진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주요 인물들이 나서지 않았고, 결국 김구가 1926년 말 취임하며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국무위원제)로 전환하여 이동녕과 함께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1927~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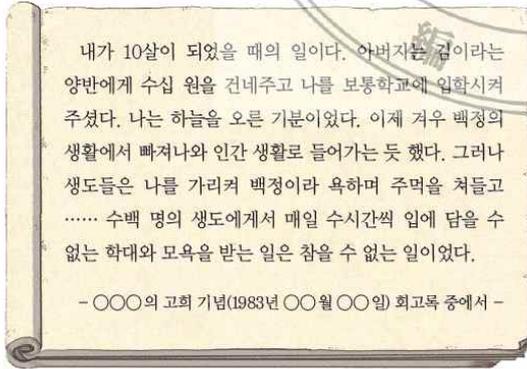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1932년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의열투쟁)를 이루어내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김구는 김원봉이 주도하는 민족 혁명당의 임시정부의 해체 주장에 반대하며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다(1935).

한편 임시정부는 1932년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를 떠나 절강성 항저우로 이전하였고,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임시정부는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인 1940년 5월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다.

한편,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총사령관 지청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1941.12)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남은 세력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고(1942.7), 한국광복군은 증강된 병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진공작전(정진군)을 계획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1945.3).

44.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형평 운동의 배경을 알아본다.
- ②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③ 신흥 무관 학교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전개과정을 알아본다.
- ⑤ 언론 기관의 문맹 퇴치 운동 지원 활동을 조사한다.

정답: ①

* 형평 운동

‘백정’이라는 단어와 저자의 나이로 볼 때 (1983-60=1923) 형평운동임을 알 수 있다.

갑오개혁(1894)으로 신분 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최하 신분층이었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심해졌다.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였다.

1925년에 본부를 서울로 옮긴 조선 형평사는 1927년에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회원을 크게 늘려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형평사는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파업이나 소작 쟁의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후 형평 운동은 내부에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의 통일성이 상실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3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② 갑오개혁 이후 반포된 교육 입국 조서(1895.2)의 정신에 따라 근대 교육 제도가 확립되면서 소학교와 사범 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관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③ 서간도 지역에서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④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1923)를 중심으로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⑤ 1920년대 후반부터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조선일보(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브나로드운동) 등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45.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홍사단 창립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가) 은/는 국권이 피탈되자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현실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사단을 설립하였다.

- ①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였다.
- ②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 ③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⑤ 국민 대표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정답: ⑤

* 도산 안창호(1878~1938)

일제 시대의 실력양성(무실역행)을 주창한 대표적 독립 운동가.

1899년 점진 학교를 세워 교육 운동을 하던 중,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지식을 배웠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이듬해 귀국해 1907년 양기탁 등과 함께 비밀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일제의 강제 합병 이후 신민회가 해산되자, 1913년 미국에서 홍사단을 창설해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3·1 운동 이후에는 상하이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내무총장).

그러나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론(새 정부 구성: 문창범, 신숙, 신채호) 대 개조론(현정부 틀속에서 개혁: 여운형, 안창호) 논쟁에서 개조론의 입장이었으나, 임시 정부가 여러 파벌로 갈리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적극 호소하여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가 창립되었다(1926).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1932)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붙잡혀 2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출소했다. 그 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였다.

그는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보다는 민족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를 토대로 '민족 개조론'을 주창하였는데 일본을 본받아 힘을 기르고 자치론을 주장하는 이광수 등의 타협적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46. (가), (나) 장면이 있었던 시기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③ 김구 등이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 ④ 여운형 등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⑤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 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5)와 5.10 총선(1948) 사이의 역사적 사실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 건국 동맹의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5.8).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 세력이 건국 준비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했으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미군-직접통치, 소련군-김일성을 내세운 간접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었다.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차: 1946.3~5, 2차: 1947.5~10)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를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7.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8.15).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1948.9)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1949.6 입법. 1950~1957년 시행).

47. (가), (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부 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헌법 제2호 -

(나)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 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3호 -

<보 기>

ㄱ. (가) - 6·25 전쟁 중에 공포되었다.

ㄴ. (가) -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 규정하였다.

ㄷ. (나)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ㄹ. (나) - 계엄하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발췌개헌(1952)과 사사오입개헌(1954)

헌법 제2호, 3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2호에서는 대통령 국민직선조항, 3호에서는 부칙의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폐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1950년 5월, 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 중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선

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1952. 1.). 그리고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전시 수도권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또 10여명의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원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다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1952. 7.).

-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 이틀 만에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2차 개헌: 1954).

㉠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3차 개헌, 1960.6).

48.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외환 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 ① 금융 실명제가 시작되었다.
- ②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 ③ 지방 자치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 ④ 남북 정상 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 ⑤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를 극복하려 하였다.

정답: ④

* 김대중 정권(1998.2~2003.2)

여야 평화적 정권교체로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여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6.13 남북 정상 회담과 6.15 남북공선언을 실현하였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평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여 붉은악마의 멋진 응원과 함께 4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냈다.

①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고, 5.16 군사 정변 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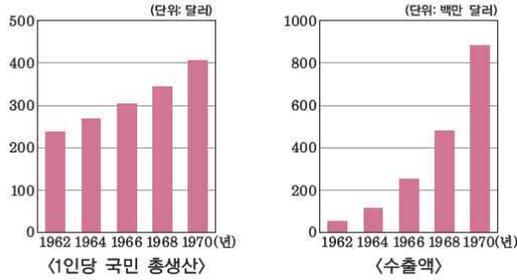
② 전두환 정부(1980.8~1982.2)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생 교복 자율화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우리나라 지방 자치제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회의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 1960년 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되었다가 김영삼 정권 때인 1995년 4대 지방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⑤ 6월 시민항쟁의 결과물인 1992년 12월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1988년 4.26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참패하여 여소야대 국면이 되자 여권은 1990년 노태우(민정당), 김영삼(민주당), 김종필(공화당)이 전격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민자당)이 출범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49. 그래프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저곡가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②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 ③ 건설업의 중등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 ④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 ⑤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정답: ③

* 1960년대의 경제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때 4차까지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수입은 19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의 경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이 추진되어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며,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컸었다. 결국 대기업 위주의 성장,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 심화는 후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③ 1970년대 초(1973~1974)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와 건설업의 중등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50.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사건에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2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국민적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① 부정 선거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라!
- ②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철폐하라!
- ③ 사죄와 배상 없는 경제 협력 웬말이나!
- ④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 ⑤ 긴급 조치 철폐하고 민주 인사 석방하라!

정답: ④

*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1980.8~1988.2)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당시 헌법인 대통령 간선제 고수 입장)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②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5.18 민주화 운동).

③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④ 박정희 정부(1963~1979)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⑤ 박정희 정권은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